



평가부터 미래 가치까지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종이에만 매달려 있는 선배들이 신입사원인 그의 눈에는 너무 안타까웠다.

그가 하는 일은 고객의 토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해 주는 일이다. 고객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가격 정보와 토지·건축물 대장 정보, 설계 정보, 금융 정보까지 연결한다. 이렇게 축적된 인공지능(AI) 기술로 고객은 해당 토지·건물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땅을 팔 수도 있고 땅에 필요한 시설을 넣어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AI 건축 설계 프로그램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 땅에 어울릴 만한 건물을 설계해 보여준다. 땅 소유주는 고르기만 하면 된다.

최근에는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 토지 소유권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세대는 40~50대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시골에 있는 논·밭이나 산을 물려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40~50대는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며 시골에 내려가 볼 시간도 없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김 대표는 이들이 갖고 있는 땅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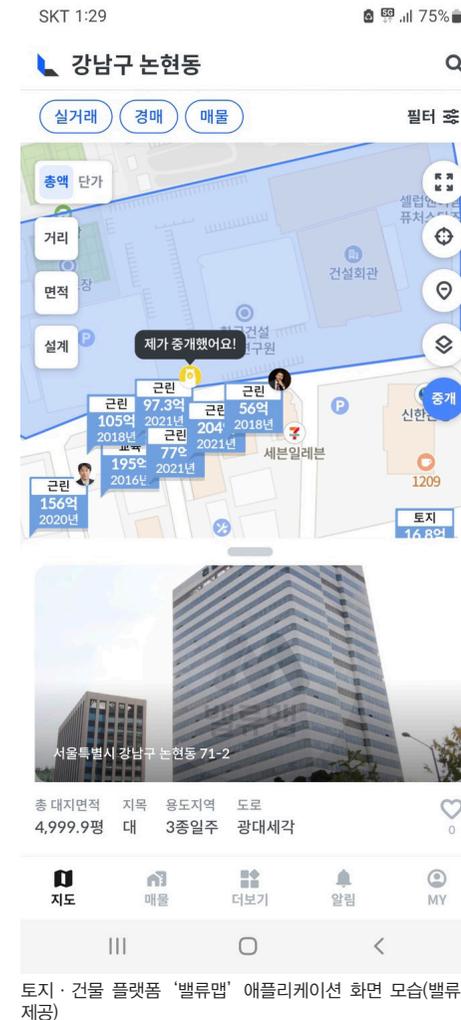


'밸류맵' 김범진 대표의 인터뷰 모습(밸류맵 제공)

휴지로 남아 있는 게 안타까웠다. 그는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모았다. 그리고 이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주로 전원생활을 시도해 보고 싶은 은퇴 직전 부부나 '4도 3촌(4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3일은 농촌에서 쉬는) 생활을 꿈꾸는 20~30대다.

땅을 빌리고 집을 짓지 않아도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모듈러 주택을 생각했다. 공장에서 미리 집을 만든 뒤 원하는 땅에 설치하기만 하면 된다. 인테리어 업체들과 협력해 집 안에 가구도 갖췄다. 원한다면 계약 기간만큼 살아 보고 전원생활을 해볼지 포기할지 결정하면 된다.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돕는 김 대표가 있다면 똑똑한 소비를 돕는 박 대표도 있다.



토지·건물 플랫폼 '밸류맵' 애플리케이션 화면 모습(밸류맵 제공)

생활경제부에 온 뒤 만난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 대표는 제일기획과 라이코스 출신이다. 그는 그동안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기업 재직 당시 다양한 파트너사와 일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욕구)'를 알아가는 데 재미를 느꼈다.

당시에는 빅데이터 기술 발달이 더뎠기 때문에 그는 소비자의 욕구를 알기 위해 무턱대고 구글과 야후에서 검색 키워드를 손수 모았다. 그 험난한 과정의 결실은 어센트 코리아의 AI 마케팅 솔루션 프로그램 '리스닝 마인드 허블'이 됐다.

리스닝 마인드 허블은 검색어에서 추출한 고객의 인텐트(의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마케팅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위스키'를 검색해 보자. 구글과 네이버에 위스키라는 단어를 검색한 양은 월평균 13만여 건에 달한다. 검색한 사람을 보면 여성(37%)보다 남성(63%)이 더 많고,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가장 많다.

위스키를 검색한 사람은 또 어떤 단어를 찾을까? 위스키 중 산토리 위스키를 찾는 사람이 있고, 하이볼로 만들어 먹기 위해 '하이볼 위스키 추천'을 검색하는 사람도 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로 쓰인 가수 김연지의 '위스키 온더 락'이라는 노래를 검색하는 사람도 있다.

박 대표의 솔루션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검색어를 고객의 의도에 따라 분류하면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위스키의 종류'나 '위스키로 뭘 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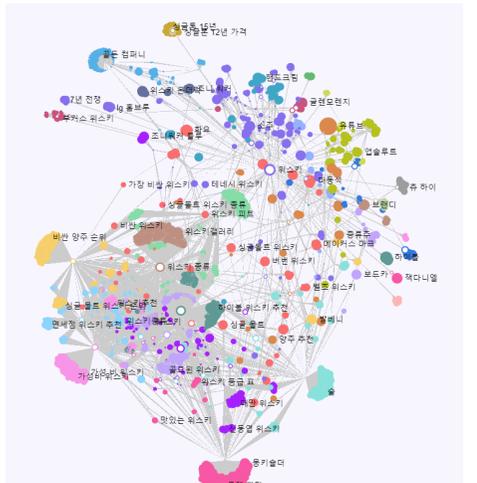
### AI가 소비 검색 데이터 역분석... 고객들 '구매 여정' 한눈에 파악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검색 엔진의 역분석은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이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박세용 대표의 포부**  
박세용 대표의 포부는 AI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는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지구촌이 리스닝 마인드 공략 대상...韓 매출, 세계 10%가 목표"**  
박세용 대표의 포부는 AI를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는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인공지능(AI) 마케팅 서비스 회사 '어센트 코리아'의 AI 마케팅 솔루션 프로그램 '리스닝 마인드 허블' 화면 모습(어센트 코리아 제공)

나요'라고 검색한 사람은 단순히 위스키에 대한 정보만 얻고 싶은 사람이다. 이들이 구매로 이어지긴 힘들다.

반면 '달달한 위스키 추천'이나 '버번 위스키 가격' 등을 검색한 사람은 당장이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스키를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박 대표는 AI 검색어로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다. 그는 이를 "고객의 구매 여정을 따라간다"고 말한다.

첫 부서 이동 후 9개월이 지났다. '부동산부는 돈 모으는 걸 알려줬는데, 생활경제부는 돈 쓰는 걸 알려주네', '부동산부는 가계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생활경제부는 통장만 비어가네'

어센트코리아의 AI 마케팅 솔루션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객들의 구매 여정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인공지능(AI) 마케팅 서비스 회사 '어센트 코리아'의 AI 마케팅 솔루션 프로그램 '리스닝 마인드 허블' 화면 모습(어센트 코리아 제공)

박 대표는 AI 검색어로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다. 그는 이를 "고객의 구매 여정을 따라간다"고 말한다.

첫 부서 이동 후 9개월이 지났다. '부동산부는 돈 모으는 걸 알려줬는데, 생활경제부는 돈 쓰는 걸 알려주네', '부동산부는 가계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생활경제부는 통장만 비어가네'



'어센트 코리아' 박세용 대표의 인터뷰 모습(어센트 코리아 제공)

하루하루 두 부서의 다른 점만 생각했던 나는 어느 순간부터 공통점을 찾아가고 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독자의 똑똑한 경제 생활을 돕기 위한 기자의 역할이다.

10년 전 또래보다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은 친구에게 나는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앞으로 경제는 더 어려워질 테고, 자원은 더 고갈될 테고, 우리 후손들은 더 먹고살기 힘들어질 거라고. 그런 미래에 아이를 낳는 게 맞는 거냐고.

그때 친구의 답은 엉뚱했다. "그때 되면 달나라에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우주에 갈 수도 있고, 내 아이는 거기에서 먹고 살면 되잖아"

엉뚱한 말을 하는 친구를 어이없이 바라봤다.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 표현

과 함께. 10년 사이 친구의 말은 현실이 됐다. 세계적인 부호와 유명 연예인은 달나라 여행을 가겠다고 하고, 각 국가는 우주 먹거리 찾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고, 투자도 소비도 멈춘 지금의 시대에 나는 '아껴야 잘 산다' 고만 생각했다. 경제는 이제 더 이상 급격하게 성장하지 못하니 우리는 자원 나눠 먹기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I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만든 김 대표도, AI 마케팅 솔루션을 만든 박 대표도 혁신적인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세대가 모두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10년 전 똥판지처럼 들렸던 친구의 말이 김 대표와 박 대표가 말했던 지금의 현실인가 보다. 아직 달나라까지 아니지만 우리 AI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기술로 재테크도 하고 소비도 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친구의 아들은 초등학생이 됐다.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아이가 그린 우주 그림이 걸려있다.

언젠가 친구가 말했던 그 세상이 성큼 다가와 있지 않을까. (P)

대한경제 오진주 기자